

# 살기 좋은 도시, 인천

(사)인천아카데미/기호일보 공동 설문조사 및 시사점

2021.6.24

명승환

shmyeong@inha.ac.kr

인하대학교



# 1. 인천 산업/경제적 환경

그 동안 인천시는 산업구조 변화와 연관산업 쇠퇴로 고용기반이 위축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정책에 따라 도심기능이 이전되어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악순환 지속

## 주/야간 인구 지속 감소

- 1) 상주 인구 감소  
- 30년간 -54.6%, 10년간 -9%
- 2) 주간 인구 감소  
- 2005년 23만명 → 2010년 21만명



## 산업/경제 쇠퇴

- 1) 총 사업체 감소('04~'13년)  
- 10년간 -17.9%
- 2) 특화산업 사업체수 감소  
- 10년간 제조업 -20.6%, 도/소매업 -18.2%



## 물리환경 노후화 및 건물신축 미비

- 1)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  
- 72.9%
- 2) 신축활동 감소(5년이하 건축물 비율)  
- 2009년 6.4% → 2013년 4.2%



## 중심지 매력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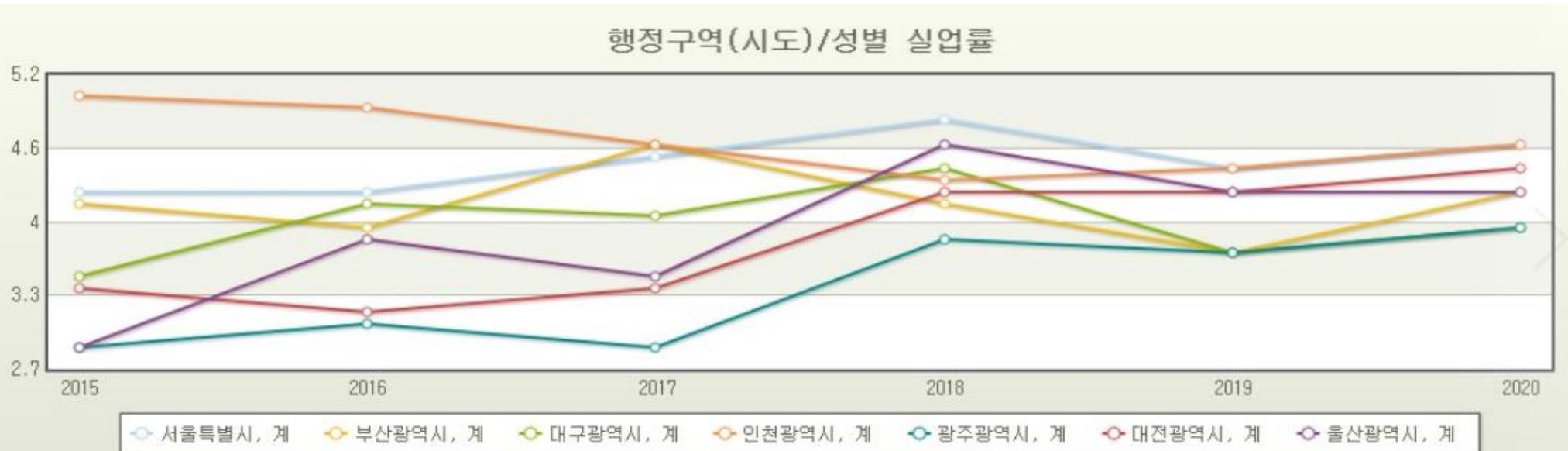
- 1) 상업용 건축물 연면적 감소  
- 5년간('09~'13년) -14.6%
- 2) 자영업체수 감소  
- 5년간('09~'13년) -14%



# 1. 산업/경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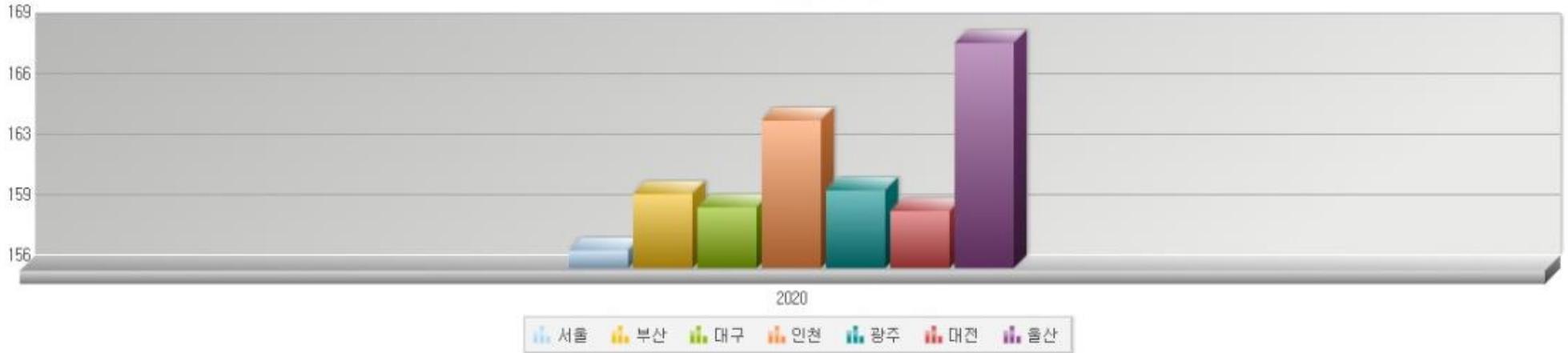
- 높은 실업률, 낮은 생산성 열악한 근무환경
  - 실업률 7개 광역시 중 최고
  - 노동시간은 높고 임금은 높지 않음
  - 7개 광역시중 총사업체수 4위, 특화사업인 제조업체 수 4위로 하위권
    - ❖ 가치창출을 위한 활동이 전방위로 필요
- 실업률
  - 지난 5년간 실업률은 5.1% ~ 4.6%로 6개 광역시중 가장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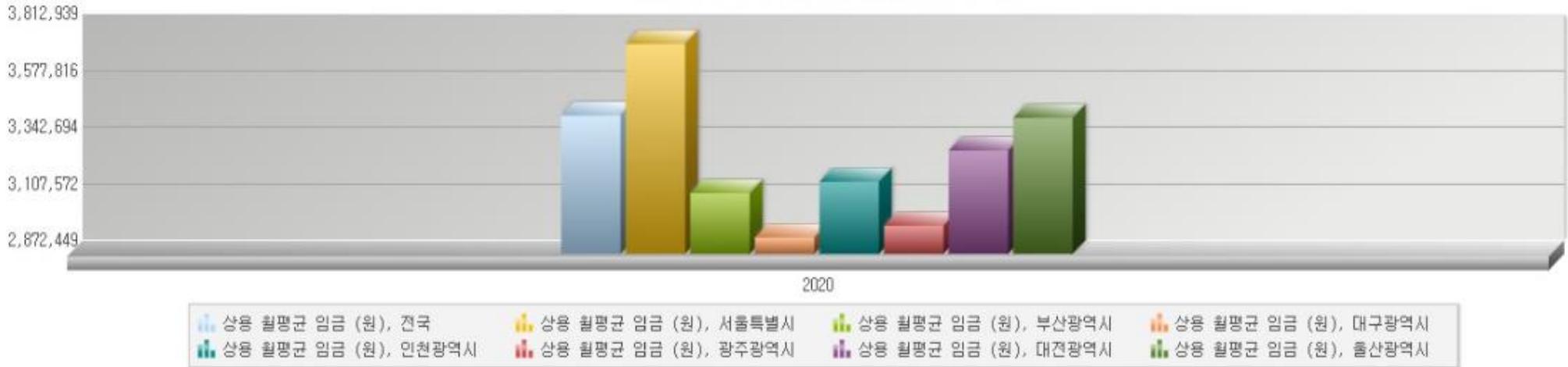


# 1. 산업/경제현황

근로시간(시도)



월평균 임금 및 임금상승률(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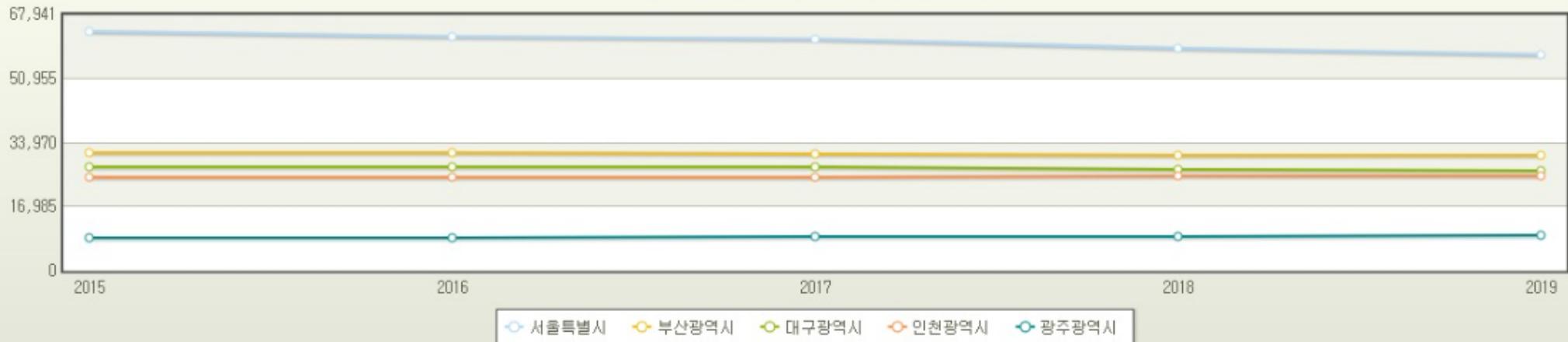
👉 2020년 근로시간은 울산 다음으로 인천 2위, 월평균 임금 5위로 하위권

# 1. 산업/경제현황

사업체수(시도/시/군/구)



제조업사업체수(시도/시/군/구)



지난 5년간 총사업체 수: 7개 광역시 중 4위, 특화사업인 제조업체 수 4위로 하위권

---

# 2021 인천시 설문조사 결과

(사)인천아카데미 & 기호일보

# 조사개요

## 1. 조사 명

인천광역시 여론조사

## 2. 조사 기간

➢ 2021년 6월19일~20일

## 3.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자동응답

## 4. 조사 대상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녀

## 5. 표본 크기

➢ 1018명(가중1000명)

## 6. 표본 추출

무선:3개통신사가 제공한 가상 번호 100 %

## 7.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  $\pm 3.1\%p$

## 8. 응답율

➢ 6.3%

## 9. 조사기관/의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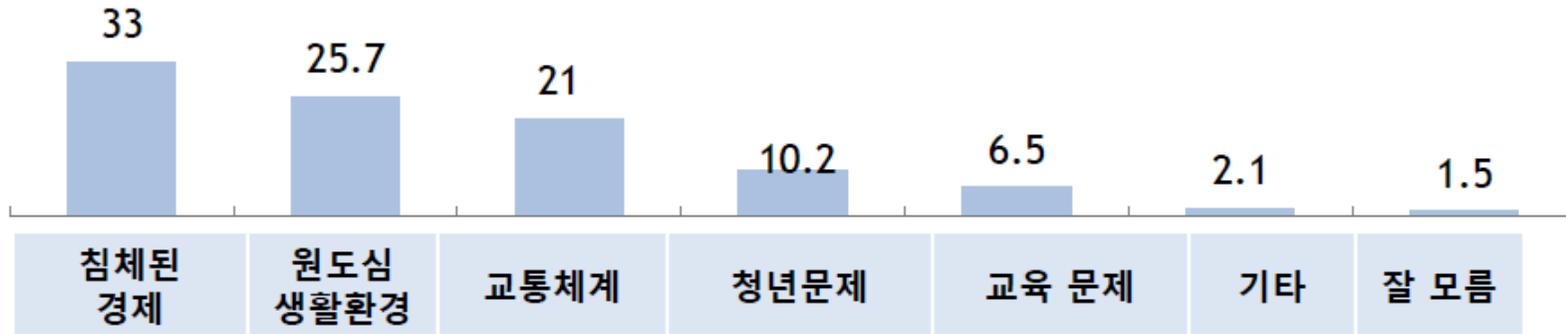
➢ (주) 알앤씨치 / (사)인천아카데미 & (주)기호일보

## 10. 통계보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 부여 (셀가중 2021년 4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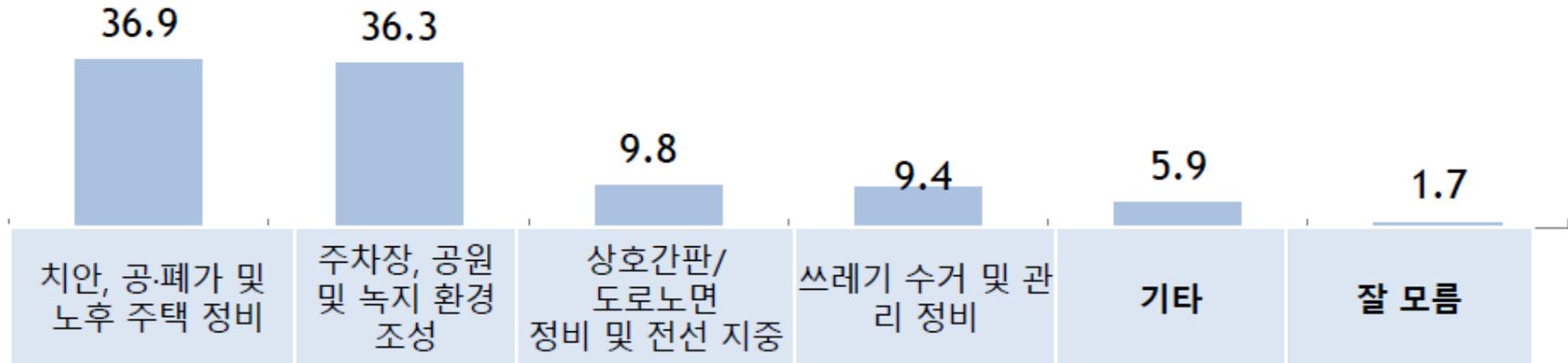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바람

# 1. 인천시의 시급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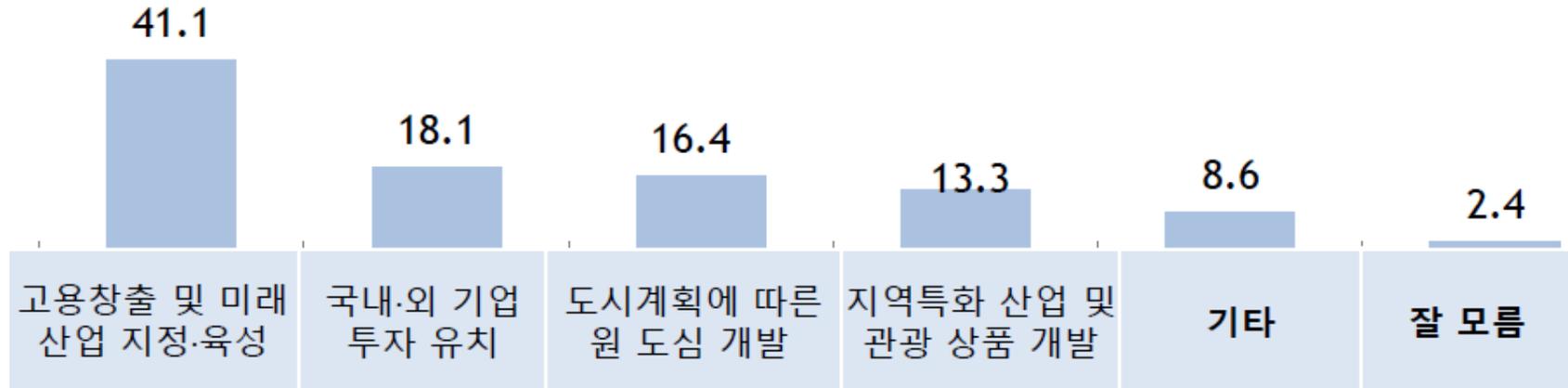
- **침체된 경제 극복**
  - 50대(39.1%)와 60세이상(41.3%)
  - 계양/부평구(39%)
  - 국민의힘(44.6%)과 국민의당(42.2%)
  - 남자(30.3%)보다는 여자(35.7%)
- **원도심 생활환경 개선**
  - 30대(33.3%)
  - 계양/부평구(30.1%)
- **교통체계 해결**
  - 50/60세 이상보다는 20/30/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청년문제 해결**
  - 20대에서 22.5% 로 가장 높음

## 2. 원도심 생활개선 위해 해결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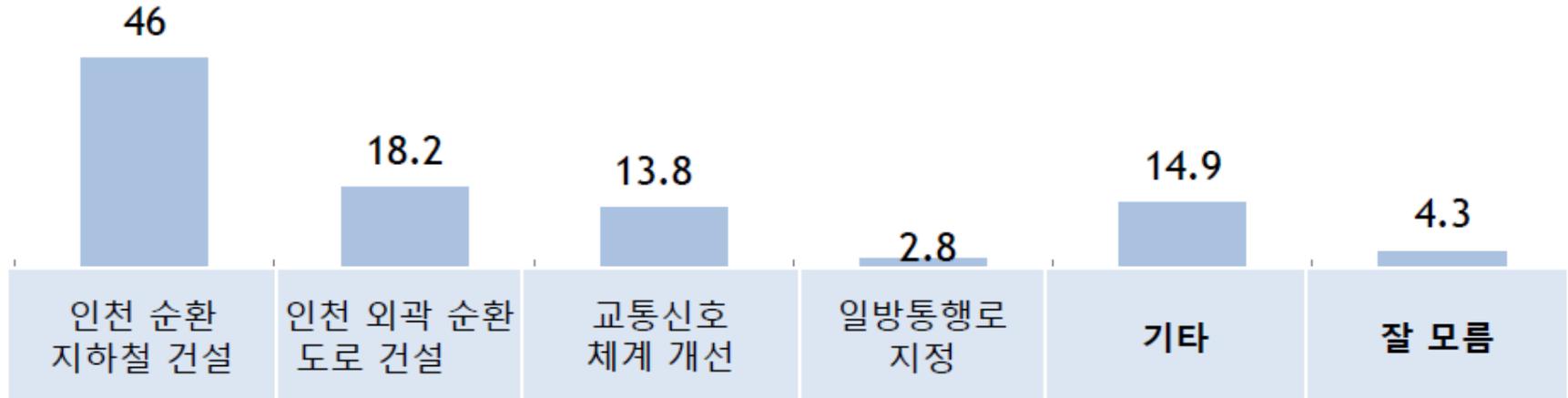
- 치안, 공·폐가/노후 주택 및 정비(36.9%)와 주차장/공원녹지 조성  
공원 및 녹지 환경 조성(36.3%)이 압도적으로 높게 조사됨
- **치안, 공·폐가 및 노후 주택 정비**
  - 60세이상(41.6%)
  - 여성(31.6%)보다는 남성(41.8%)
- **주차장, 공원 및 녹지 환경 조성**
  - 30대(50.8%)
  - 남성(33.7%)보다는 여성(39%) 층에서 가장 높음

### 3. 침체된 경제 해결 위해 해결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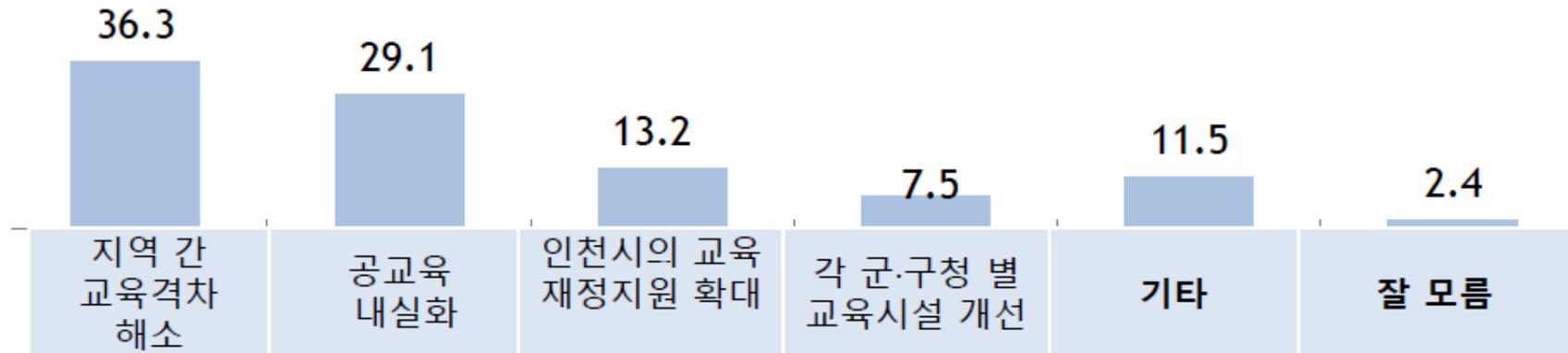
- 고용창출 및 미래 산업 지정·육성이 41.1%로 압도적으로 높음
- 그 다음으로는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가 18.1% 순으로 조사됨
- **고용창출 및 미래 산업 지정·육성**
  - 20대(54.8%)
  - 여성(39%) < 남성(43.6%)
  - 열린민주당(57.5%) 정의당(54%) 더불어민주당(45.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4. 인천시내 교통망개선을 위해 해결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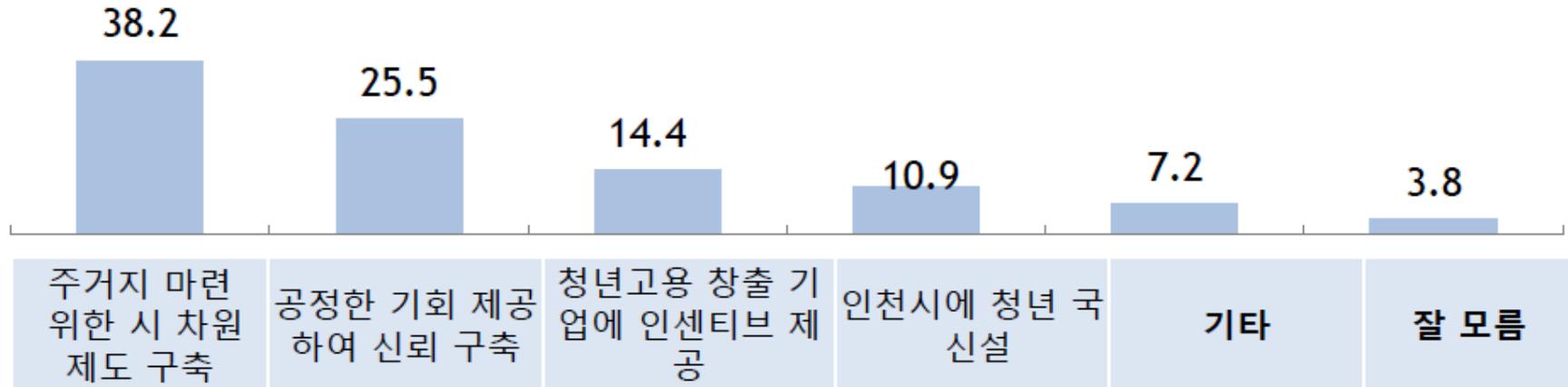
- 인천순환지하철 건설이 46%로 압도적으로 높음
- 그 다음으로는 인천외곽순환도로 건설 18.2%
- 인천순환지하철 건설
  - ✓ 60세이상(52.3%)
  - ✓ 남성(43.1%) < 여성(49.5%)
  - ✓ 동구/서구/중구/강화/옹진구(57.5%)에서 가장 높음

## 5.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해결할 과제



- 지역간 교육격차해소가 36.3%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는 공교육 내실화가 29.1%
- 지역간 교육격차해소
  - 20(62.7%), 30대(59/8%)에서 압도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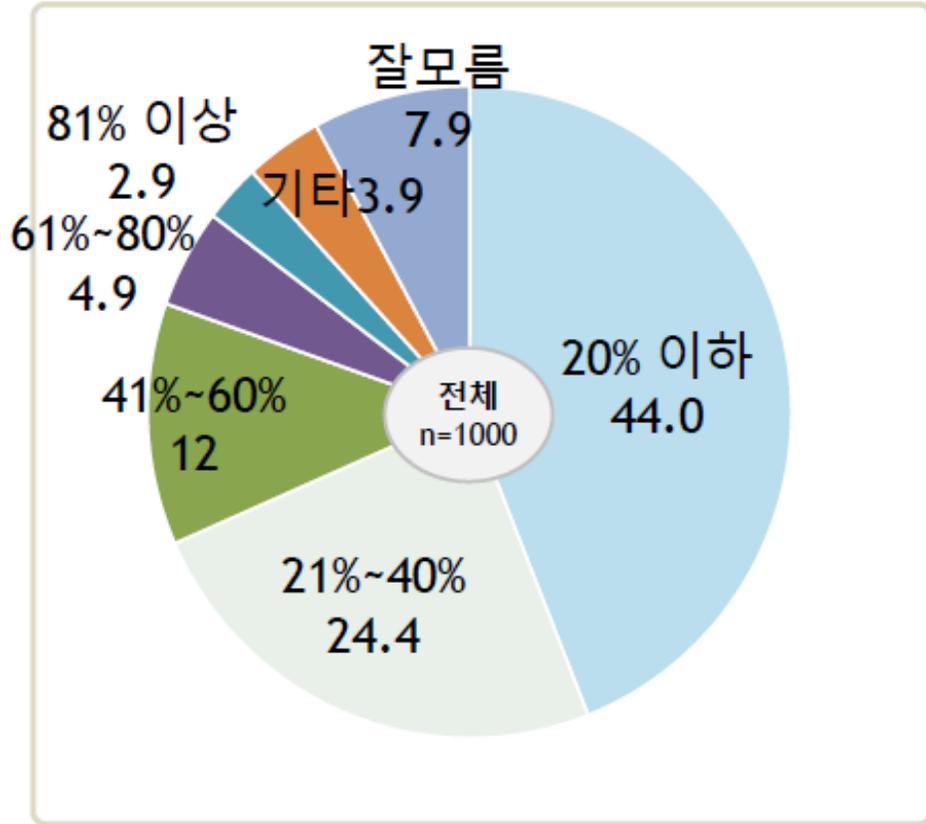
## 6. 청년문제를 위해 해결할 과제



- '주거지 마련 위한 시 차원 제도 구축'이 38.2%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는 공정한 기회 제공하여 신뢰구축이 25.5% 순
- **주거지 마련 시 차원 제도 구축**
  - 20대 49.8%
  - 30대 51.6%
- **공정한 기회제공 신뢰 구축**
  - 60세 이상 55.3%으로 압도적임

# 7. 제7대 민선 인천시장이 제시한 정책 중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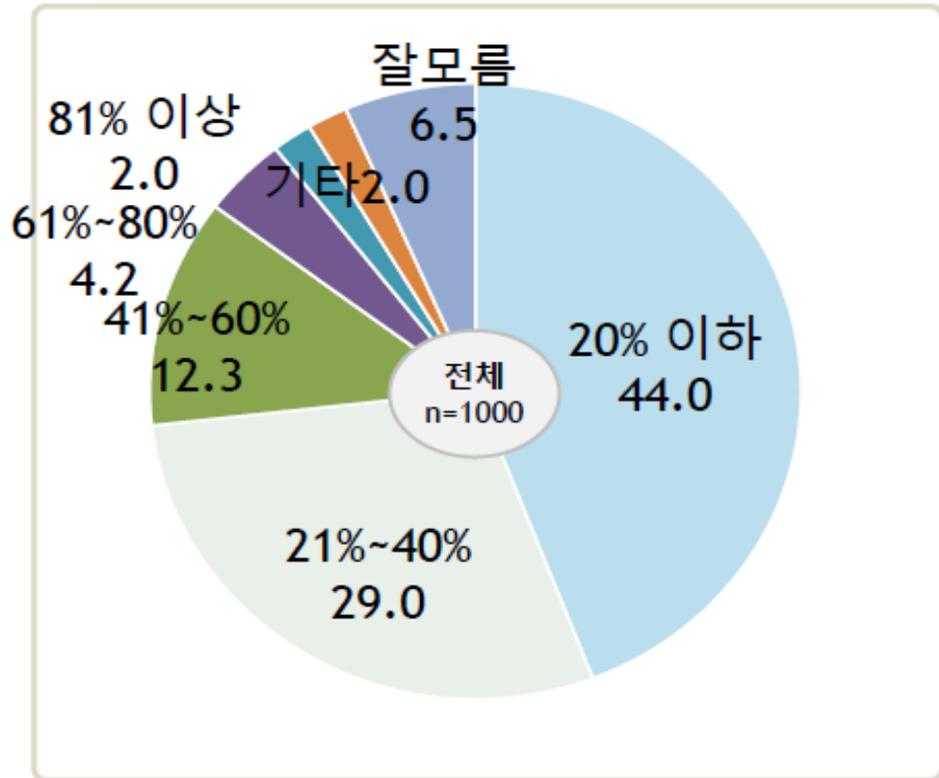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인천 정책 달성도 (%)



- 44%가 20%이하
- 81%이상은 2.9% 에 불과
- 인천시민 10명중 7명 이상(68.4%)은  
(20%이하 44% + 21%~40% 24.4%)  
40%이하로 생각

# 8. 7세대 민선 인천시장이 제시한 정책 중 원도심-신도시의 균형발전 정책 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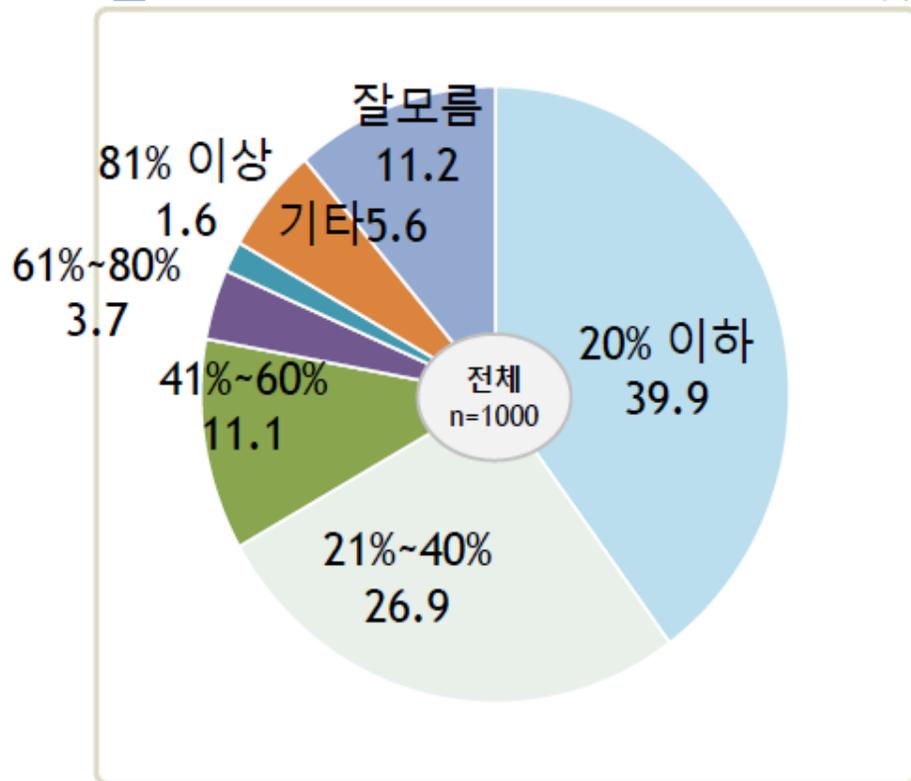
원도심-신도시의 균형발전 정책 달성도 (%)



- 44%가 20%로 응답
- 81%이상은 2.0% 에 불과
- 인천시민 10명중 7명(73%)은  
(20%이하 44% + 21%~40% 29%)  
40%이하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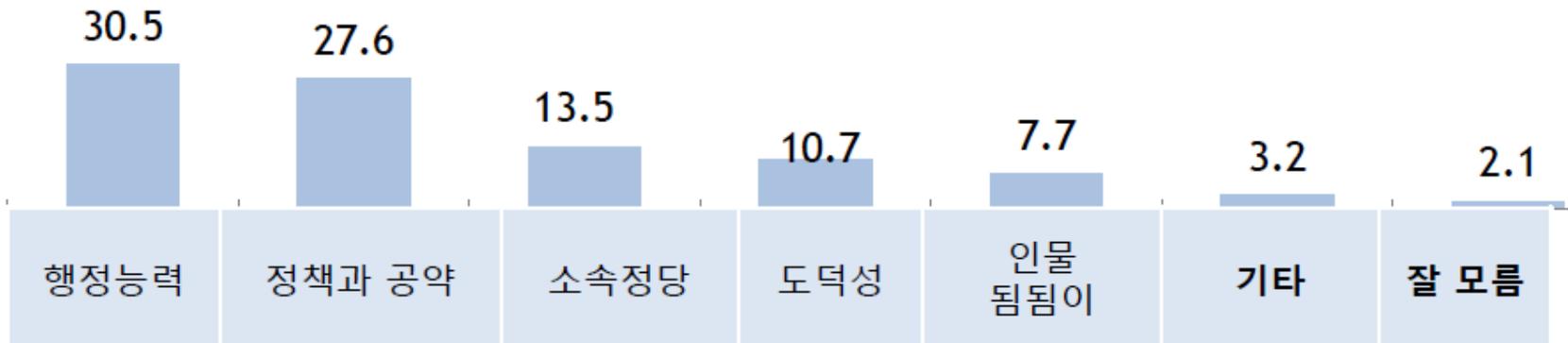
# 9. 제7대 민선 인천시장이 제시한 정책 중 1조원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정책 달성도

1조원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정책 달성도 (%)



- 39.9%가 20% 로 응답
- 81%이상은 1.6% 에 불과
- 인천시민 10명중 7명(66.8%)은  
(20%이하 39.9% + 21%~40% 26.9%)  
40%이하로 생각

## 10. 차기 인천시장 선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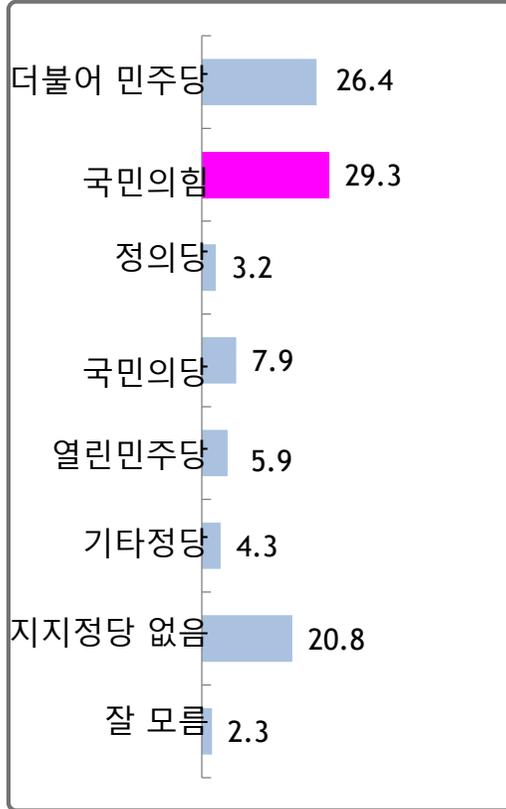


- 행정능력 30.5%로 가장 높았으며,
- 정책과 공약 27.6%, 소속정당 13.5%, 도덕성 10.7%순
- 행정능력 및 정책과 공약
  - 50/60세이상보다는 20/30/40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도덕성과 인물 됴됨이
  - 20/30/40세대보다는 50/60세 이상 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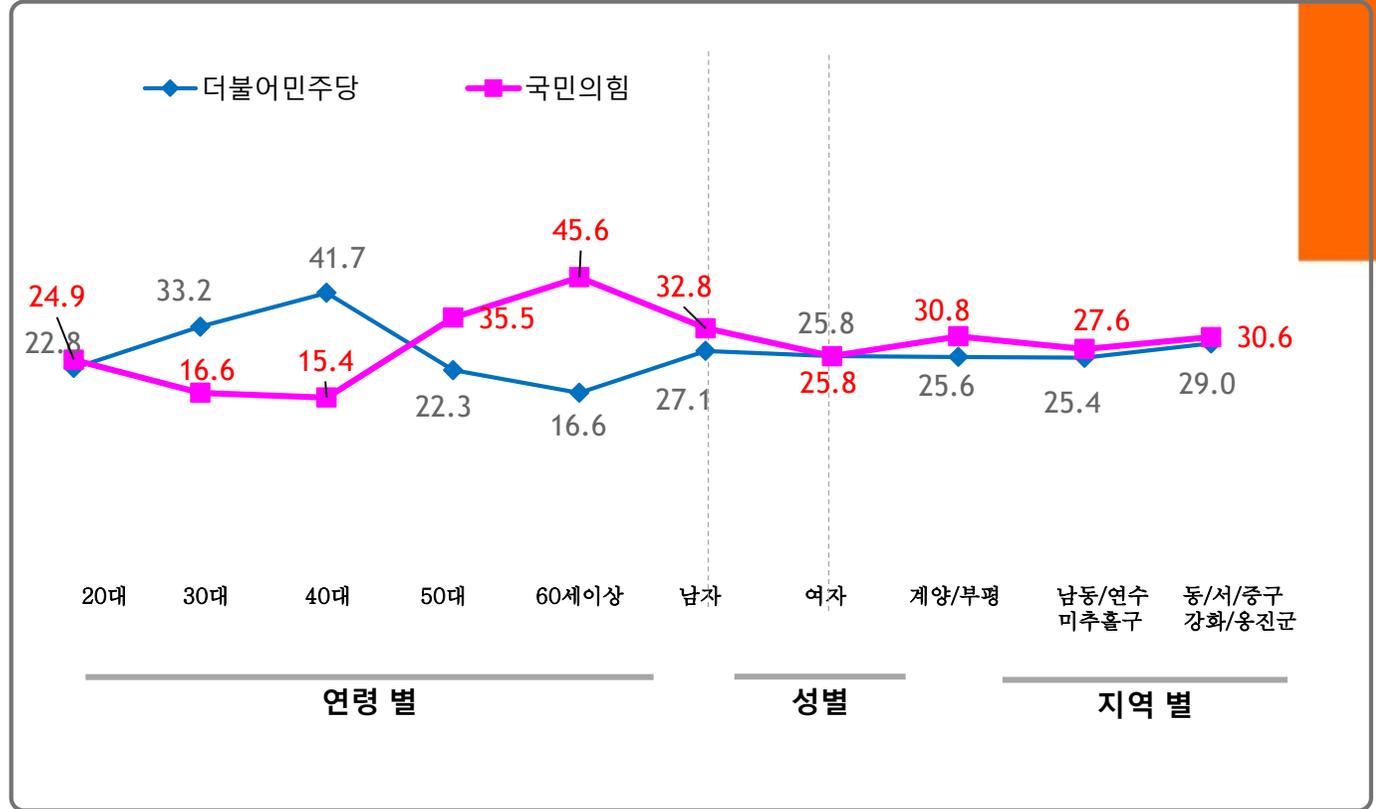
# 11. 정당지지율

## 지지 정당

(n=10, %)



## Tpo 2 정당: 연령 성 지역별



- 국민의힘 29.3% > 더불어민주당 26.4% > 국민의당 7.9% > 열린민주당 5.9% > 정의당 3.2%
- 1,2위당 간의 격차는 오차범위내 2.9%p로 근소한 차이를 보임
- 30/40대는 더민주, 50/60세 이상은 국민의 힘,  
20대는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31.6% 로 가장 높음

# 설문조사 결과 요약

-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위한 인천시민의 의식 조사

## 1. 인천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

- ① 침체된 경제 극복(33%) ② 원도심 생활환경 개선(25.7%) ③ 교통문제(21%)
- ④ 청년문제(10.2%) ⑤ 교육문제(6.5%) ⑥ 기타, 모름(3.6%)

## 2. 인천의 침체된 경제 극복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

- ① 고용창출 및 미래 산업 육성(41.1%) ②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18.1%)

## 3. 원도심 생활개선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

- ① 치안, 공·폐가 및 노후 주택 정비(36.9%) ② 주차장, 공원 및 녹지 환경 조성(36.3%)

## 4. 인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 ① 인천순환 지하철 건설(41%) ② 인천 외곽순환도로 건설(18.2%)

## 5. 인천의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

- ① 주거지 마련 위한 시 차원 제도 구축(38.2%) ② 공정한 기회 제공으로 신뢰 구축(25.5%)

## 6. 인천의 교육 문제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

- ①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36.3%) ② 공교육 내실화(29.1%)

# 설문조사 결과 요약

7. 제 7대 민선 시장의 정책 중,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 구축, 원도심-신도시의 균형발전 정책 달성도 및 1조원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정책 등에 대한 달성도는?

40% 이하 (평균 69.4%) 임

8. 차기 인천시장 선택 기준은?

① 행정 능력 (30.5%) ② 정책과 공약(27.6%) ③ 소속 정당(13.5%)

9. 정당 지지도는?

① 국민의힘(29.3%) ② 더불어민주당(26.4%) ③ 국민의 당(7.9%) ④ 열린민주당(5.9%)  
⑤ 정의당(3.2%) ⑥ 지지정당 없음(20.8%) ⑦ 기타, 모름 등 (6.6%)

# 시사점과 교훈

1. 인천 시민이 원하는 것은 집 걱정 없고, 일 자리가 있으며, 출근하기 좋은 교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쾌적한 환경
2. 설문 조사에 나타난 의식조사 결과, 세대, 성별 및 지역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남. 그러므로 정치가는 세대와 지역 및 성별에 맞는 섬세하고 맞춤형의 리더십 필요
3. GTX, 쓰레기 매립지 등 국가적 정책에 대한 사전준비와 전략 부족, 반복되는 원도심 개발 실패, 열악한 근로환경, 교육격차 문제는 해결된 적이 없음
4. 인천시장은 그의 리더십을 발휘함에 있어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미래 지향적이며 적극적이고 전략적 사고가 요구됨

# 부록: 해외사례의 시사점

광역단체의 모범적 전략체제 모델로 핀란드의 사례:

‘중장기 비전 수립’부터 ‘부처별 및 실국별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사업 및 프로그램 시행’ 등 체계적 추진체제를 구축

“사회간접자본(SOC)과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하드웨어 정책, 지역 이기주의, 나눠먹기식 예산배정 등 현재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소모적·비효율적 지방 자치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전략적 사고와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x_{\infty} \tau \{ \cdot : \square \infty \cup \xi \Leftarrow \square \theta \exists \diamond, \square \lambda \square \} \uparrow \langle \cdot : \otimes \Leftarrow \exists \Delta \cdot : \text{TM} \rangle \text{ \& } \exists \} \} \text{TM} \cong \square \square \square \} \exists \} \exists \}, \text{H}^{\text{TM}}$   
 $\} \square \uparrow, \uparrow \mu \square \xi \square \square \cong \square \leftarrow \cdot : \xi \cdot : \leftarrow \square \otimes \Delta \diamond / \square \square \mid \text{H} \diamond \diamond \infty \} \square \times \Delta \square \square \square \angle \otimes \Delta \square$

# 전략적 사고의 필요성

**전략**은 정치, 경제, 군사, 경영에서 흔히 사용되는 개념이다. 고대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상대편의 약점과 자기 조직의 장점을 제대로 파악해 전략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했기 때문이다.

경영전략은 기업이 경영자원을 배분하는 기본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업 중심 혹은 사업의 다각화로 갈 것인지, 시장에서 경쟁해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능별로 인적·물적 자원을 배분해 기본 경영전략을 실천한다.

따라서 도시와 지자체의 전략평가는 전략수립이 **지자체 여건과 역량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수립되고 실천가능한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저출산, 청년실업, 성장동력의 부재 등 총체적 난관에 부딪혀 있다. 반면에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오래전 부터 준비 중이며, 그 기본 바탕에는 **창조적 마인드, 과학적 접근, 공동체 정신의 부활, 융합적 사고**가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지방자치와 단체장은 과거 중앙과 공급자 중심의 체제와 사고에서 벗어나 미래비전과 전략을 확실히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 순위]

	전체	노동시장 유연성	교육시스템 유연성		인프라 유연성 (기술수준 포함)	법률 시스템
			교육수준	혁신수준		
미국	5	4	6	4	14	23
일본	12	21	21	5	12	18
독일	13	28	17	6	10	19
한국	25	83	23	19	20	62
중국	28	37	68	31	57	64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 순위]

주: 국가순위는 5개 항목의 평균순위를 기준으로 설정

자료: UBS(Union Bank of Switzerland),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2016.1.)

# 스마트 도시에 필요한 리더십

- 1) Empower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이 시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맘껏 **재량과 상식**에 기초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적정한 권한부여**를 할 줄 아는 능력
- 2) Engage 시민을 공공서비스에 **관여**하게 하여 **민주주의 끈과 시민생활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강화시킬 수 있는 능력
- 3) Enable 시민을 지역을 변화시키는 원대한 계획에 참여시키는 **조력자**의 능력

데이터에 기반한 **Predictive analytics(예측적 분석능력)**을 가진 리더십은 기존의 반복되었던 문제를 가장 비용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리더십**

# 스마트도시의 새로운 리더십

## 전통적 리더십

### 그 동안 익숙했던 지도자의 모습

- 권력과 지위에 관심
- 계서적 명령
- 감시, 전달
- 통제와 생산성 제고가 목표
- 조직목표 달성
- 지역주민에게 정책 및 방침 일방적 홍보
- 고립형/즉흥적 위기관리

Vs

## 새로운 리더십

### 새로운 리더십

- 권력과 지위가 제1의 관심이 아님
- 리더십은 사람, 조직, 네트워크와의 소통 속에서 형성
- 리더십은 개인과 개인으로 전달되어 공감대 형성
- 지역주민에게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목표를 공유
- 위기 시 지역주민에게 긴급명령을 내리는게 아니라, 지역주민과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대처하는 리더십

전통적 리더십은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에 부적합 -> 고립형/즉흥적 리더십

상황맥락적 변화관리가 가능한 소통형/준비형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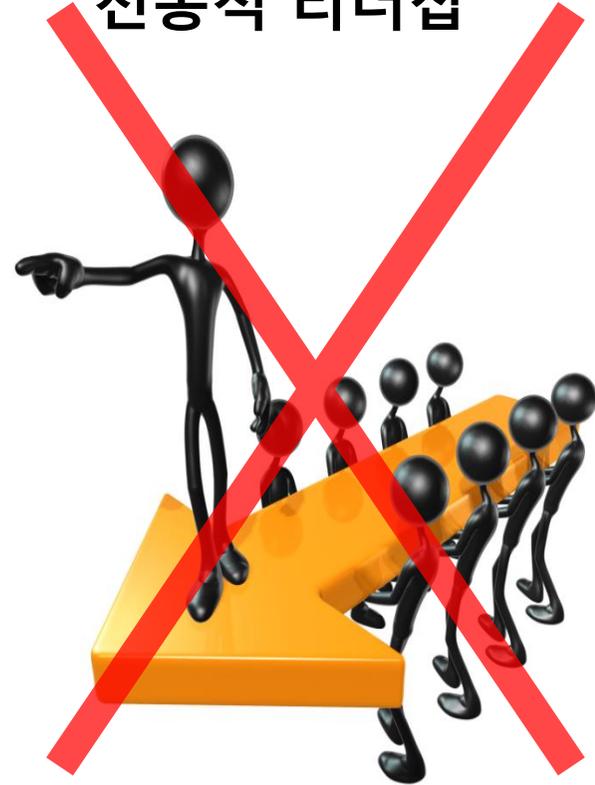
# 스마트 도시 리더십

네트워크 거버넌스 리더십



V  
S

전통적 리더십



감사합니다

